

아르코미술관 아트토크 2.0 작가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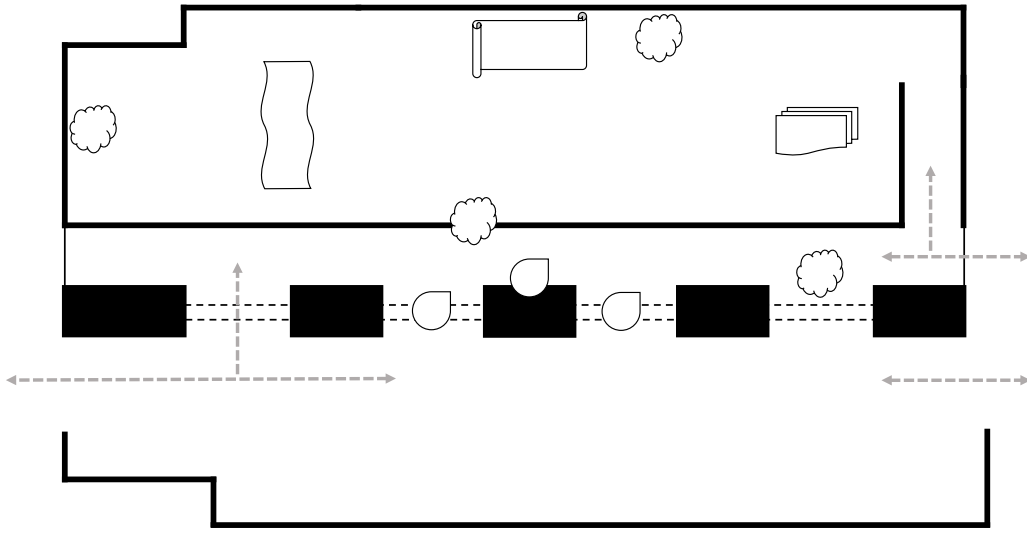
2023년 아르코미술관 전문인 교육 ‘아트토크 2.0’은 신진 전문 인력이 현장 전문가와 소통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아트토크(교육·연구)’와 ‘인미공 창작소(연구·창작)’ 각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기획 운영되었습니다. ‘아트토크 2.0: 작가 과정’(이하 ‘작가 과정’)은 창작의 다양한 층위 중 ‘연구·협업·공유’에 주목하여 참여자 공모 및 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7일 원서동에 위치한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작가 과정’은 참여 작가 5인에게 15주간 연구, 창작, 교육,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¹⁾²⁾하였으며, 작가들은 그동안의 성과 혹은 고민의 흔적을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일주일간 아르코미술관 1층 공간열림에서 공유합니다.

《층계참》은 ‘작가 과정’에 참여하며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낸 다섯 작가(문지호, 박소현, 손혜주, 유은, 윤동훈)의 근작을 비롯해 향후 작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설치, 아카이브 등 작품과 자료를 선보입니다. 전시의 제목인 ‘층계참(landing)’³⁾은 층계 도중에 넓고 평평하게 마련된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층계의 방향을 바꾸거나 보행자에게 휴식 또는 안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층계참》은 층계 끝의 출입구로 나가거나 들어가는 완결형의 전시가 아닙니다. 인미공이라는 층계참에서 처음 만나 ‘전시 이전’의 과정을 함께 밟아 온 다섯 작가가 또 다른 층계참인 아르코미술관 공간열림에 모여서 ‘전시 이후’를 도모하는 전시입니다.⁴⁾ 전시는 다섯 작가가 각자의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하되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개입하는 관계를 형성⁵⁾하도록 구성됩니다. 작품들은 하나의 주제로 묶이지 않지만 ‘작가 과정’의 시간과 아르코미술관·인미공의 공간에 낱실과 씨실처럼 교차하며 성긴 지형도를 만들어 냅니다.⁶⁾

손혜주와 윤동훈은 문헌 및 현장 조사연구, 인터뷰, 기록 촬영 등을 기반으로 한 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작업의 경로를 살피는 한편, 연계 스크리닝과 토크 프로그램에서 관객과 함께 전작을 보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문지호는 다른 두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한 두 밴드의 퍼포먼스를 촬영하고 서로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한 기록을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영상 속 퍼포먼스는 전시 기간 중 공간열림 안팎에서 재현되어 지금과 나중의 시차에 관해 상상하고 질문합니다. 박소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와 귀에 들리지 않는 글을 앞선 세 작가의 영상 작업 사이 곳곳에 병치합니다. 필드 레코딩을 재료로 삼는 음원은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청각적 감각을 공간에 잔향처럼 머물도록 하며, 전시 마지막 날 연계 퍼포먼스를 통해 공간 전체를 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유은은 텍스트 기반의 설치물과 몸짓으로 자신의 작품과 다른 네 작가의 작품, 공간의 안과 바깥을 연결합니다. 공간열림의 측면 유리문(벽면)을 넘나드는 텍스트는 ‘나’와 ‘우리’의 경계를 감각하도록 유도하며, 작가의 몸짓은 워크숍으로 확장되어 관객과 함께 공생과 공멸의 실천 형태를 모색합니다.

‘작가 과정’은 작가 개인의 창작 활동이 다수가 복잡하게 얽힌 ‘연구·협업·공유’의 지형을 만들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참여 작가들이 경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층계참》은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품과 유무형의 부산물을 엮어서 작가들이 체득한 지형적 감각을 그들만의 지형도로 그려냅니다. 다섯 작가가 잠시 머무는 층계참에 함께 모여 그들의 창작 연구 성과와 고민을 살피며, 우리의 다음 층계는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질문하고 상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1) 15주의 ‘작가 과정’ 진행 중 참여 작가, 멘토, 담당자, 조력자, 협력자 간 다양한 의견 제시와 수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글은 주제인 ‘연구·협업·공유’에 따라 내용의 주요한 출처를 각주로 언급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2) ‘작가 과정’에 함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지호, 박소현, 손혜주, 유은, 윤동훈(이상 참여 작가), 권은비, 정시우(이상 프로그램 기획 자문 및 참여 작가 멘토링), 김신재, 김익현(이상 강연 및 참여 작가 자문), 김영은, 박은선, 염인화, 오민, 홍진현(이상 참여 작가 자문), 이민정(아트토크 2.0 총괄), 임석호(아트토크 2.0 작가 과정 기획 및 운영), 김예원, 송연주(이상 아트토크 2.0 작가 과정 기획 및 운영 보조). 각 참여 작가의 창작 연구에 협력한 분들은 작품 정보에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 3) ‘층계참’은 2023년 8월 23일(수) ‘작가 과정’ 모임에서 참여 작가 윤동훈이 제안한 제목입니다. 이전에 층계, 단차를 특징으로 하는 공간열림의 구조를 언급한 멘토 정시우(큐레이터)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 4) 현재 아르코미술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인미공은 2000년대에 신진예술인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아카이빙 등 ‘전시 이전’과 ‘전시 이후’의 중요성을 부각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인사미술공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인미공 공공이공》 자료집 『인미공 공공이공』(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p.331 참고.
- 5) 멘토 권은비(작가)는 강의, 멘토링을 통해 협업자를 배려하고 자신이 발 디딘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개입하는 태도에 관해 참여 작가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6) 2023년 8월 9일(수) 멘토 정시우가 지도에 관심을 두는 참여 작가 손혜주의 작업에서 착안하여 작가에게 전시를 위한 가상의 지도 제작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후 전시 공간 구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지호, <지금은 절대로 유한하지 않아>, 2023, 다채널 비디오 설치, 사운드, 25분 10초

<지금은 절대로 유한하지 않아>는 하나의 동시-공연-장치이자 동명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이다. 동일한 일시(2023년 8월 27일 19시 30분)에 밴드 felt와 밴드 소수윗은 각각 서울광장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비스듬히 떨어진 장소에서 공연을 했다. 두 밴드의 라이브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을 매개하여 서로의 장소에 송출되었고, 동시에 아주 천천히 퍼져서 사라졌다. 공연 영상을 담은 두 개의 비디오는 서로를 등진 채 설치되고, 하나의 오디오를 공유한다. 2023년 서울시의 쿼어 페레이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서 시작된 본 작품은, 점유의 대상이 되는 규범적 시공간, “나중에”의 영원한 시차, 신호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정치성을 질문하며, 허구적인 시차와 허구적인 싱크, 쿼어한 시차와 쿼어한 싱크에 대해 상상한다.



박소현, <Glacier Buildings>, 2023, 사운드, 텍스트, MP3 플레이어 4세트, 가변설치

<Glacier Buildings>은 상승과 소멸에 관한 사운드 르포르타주 사례 연구 작업으로, 작가가 발견한 네 가지 상승 현상 또는 상승 주체의 생성 과정을 역추적, 동시에 발생하는 생태적 소멸을 청각화한 탐사보도이다. 건설 산업, SNS의 좋아요 수, 커피 산업 생태 등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기록한 상승과 소멸의 소리를 원료화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상승 혹은 소멸을 촉발하는 새로운 소리의 현장을 재현해낸다. 르포르타주의 기록성과 사운드 장르를 결합, 사회와 생태의 관계망 속에서의 소리의 기능 방식을 고찰한다.



손혜주, <지표II 초고>, 2023, 도큐먼트 / <지표 I>, 2022, 단채널 FHD 영상, 흑백&컬러, 1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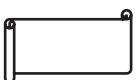
‘지표’는 영상 시리즈 작업이다. 작업은 공간을 정보화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미지 프로세싱과 같은 기술의 작동 방식과 그 근원적 형태를 연구하는 한편, 문화적 제도로서 이미지가 개인과 사회/경제를 매개하도록 역할 한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공간을 둘러싼 재현과 생산의 의미를 질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술적 조건으로 하는 오늘날 기술이 생산하는 ‘현실’과 이 개념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위상을 비평하고, 이를 움직이는 토대를 감지하고자 한다. 「지표II 초고」(2023)는 리서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자 구상 중인 작업의 단편들이다. 리서치 단계에서 실시간 정밀 지도 제작 회사에서의 인터뷰 및 회사의 현장 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성 항법 시스템(GPS)으로 감지되지 않는 ‘그림자 영역’과 이를 예측하는 기술적 혁신에 관한 것을 단초로 삼아 ‘자연사’와 ‘기술사’의 관계에 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층계참>을 통해 발표하는 텍스트는 리서치 경험에 기반한 기록으로서 사무실 풍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기획서를 중심으로 모인 인물, 장치, 장치의 가동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은, <Vado Mori>, 2023, 글, 유리문, 물백묵, 콜라주책(혼합재료), 페비닐, 코바늘, 뭍, 가변설치, 가변시간

(*퍼포먼스 일시: 9.20.(수) 13:00~17:00)

<Vado Mori>는 존재의 필멸과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의 고리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발전사로 인해 단절돼 절멸로 귀결되는 시대를 은유한다. 작품에서는 죽음을 마주하기 위한 텍스트와 뭍이 전시 공간 안팎을 오간다. 작가가 쓴 텍스트는 전시장 유리 벽면을 경계로 안과 밖을 넘나들 듯이 제시되며, 우리의 뭍은 이를 읽기 위해서 안과 밖을 걸어 이동한다. 죽음에 관한 서사를 짚으며 움직이는 뭍은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자 세포덩어리이며, 형질-없음의 무한한 잠재태로서 '나'와 '우리'를 감각하고 그로부터 공생과 공멸을 위한 실천 형태를 모색한다. 죽음/사라짐을 인간이자 인간-너머의 감각으로 확장하고, 이에 대한 응답과 돌봄의 방식을 사색하는 뭍은 효율의 시간을 거스른다. 퍼포먼스에서 작가는 잘 죽기 위해 어떤 것을 남기며 죽어갈 것인가를 살피는 뭍이 되어 평일 한낮, 페비닐로 실을 만들며 전시장을 일시적으로 점유한다.



윤동훈, <재래>, 2023, 2채널 UHD영상, 컬러, 사운드, 14분 40초, 아카이브(단채널FHD영상, 5트랙 모노, 서적, 논문, 인쇄물 등)

<재래>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생성/전승된 여성 내러티브를 근간으로 한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파생된 세 가지 표상(차별/이동/환생)을 매개로 개인의 사적(私的) 기억과 공적(功績) 기억을 서로 연결 짓고 재조직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여성사 내러티브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오늘날 (이주)여성사의 또 다른 재현을 시도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제작 중간 과정이다.